

# 서울 도시탐방명소의 장소적 특성

## - 관광안내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

박수지\* ·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수료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The Place Characteristics of City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 - Focusing on the Contents Analysis of Tourist Guidebooks -

Park, Su-Ji\* · Kim, Han-Ba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place characteristics of preferable city tourist attractions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of non-academic literatures such as tourist guidebooks and web materials. The most preferable Seoul tourist attractions were selected by their frequency in literatures including Namsan and Hangang as 'natural' places, Dugsu Palace and Gyungbok Palace as 'historical' places, Itaewon and Daehak-ro as 'lively-cultural' places that were classified by their relativistic character.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essential place characteristics of tourist attractions were synthesized in urban, regional and place scale respectively. While 'contrast' was found to be the most distinguished character of the tourist attractions in the urban context, 'connectivity' was found to be the most distinguished character of the tourist attractions in the regional context. In addition, both 'visibility' and 'experience' were found to be the most distinguished characters of the tourist attractions in the place cont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laces seem to be the universal fascination factors of city tourist attractions currently recognized by ordinary citizens. We expect to further strengthen the city identity and the city tourism effect by adopting those research results systematically to the urban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eded to vitalize the urban tourist attractions that we make them to be more 'contrasting' with urban areas surrounding them, more 'connective' with vicinity areas and more 'visibly fascinating' and 'experienced actively and meaningfully' in each place of tourist attractions.

*Key Words: Tourist Guidebook, Contrast, Connectivity, Visibility, Experience*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안내서 등 현대 도시사회에서 시민들의 여가와 관광활동의 정보매체가 되는 비학술문헌의

---

**Corresponding author:** Han-Bai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82-2-6490-2843, E-mail: hbkim@uos.ac.kr

분석을 통하여 탐방선호장소들의 장소적 특성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연구범위와 방법은 서울 내의 유형별 탐방명소들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문헌에 나타나는 장소별 빈도와 내용분석을 통해 대표적 장소적 특성을 규명하려 하였다. 유형별 탐방명소는 ‘자연형 탐방명소’, ‘역사형 탐방명소’, ‘생활문화형 탐방명소’로 대별되었다. 유형별 대표장소는 빈도분석에 의해 각각 남산과 한강, 덕수궁과 경복궁, 이태원과 대학로로 선정하였다.

상기 문헌연구와 이를 보완하는 현장연구를 종합하여 전도시적 차원, 주변맥락의 차원, 장소적 차원의 세 단계에서 서울 탐방명소의 장소적 특성을 도출, 해석하였다. 각 유형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유형이 공유하는 지배적인 장소적 특성은 배경을 이루는 도시공간과의 가시적, 용도적 ‘대비성’과 주변지역과의 활동적, 의미적 ‘연계성’, 그리고 단위 탐방명소 내부에서의 ‘가시성’과 ‘체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배후도시의 환경과는 가시적, 용도적으로 명료하게 대비되면서 주변지역들과는 연계 관광적 여건이 원활하고, 장소 내부에서는 가시적 독특함과 체험적 다양성이 갖추어질 때 탐방명소로서 효과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동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도시 탐방명소의 보편적 매력요인이자 장소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들 특성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탐방명소와 그 주변의 도시환경을 조성, 관리할 때 도시 전반의 정체성과 관광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관광안내서, 대비성, 연계성, 가시성, 체험성*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에서는 70년대 이후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여가시간의 증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확대, 신속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정비로 관광이 일반화 되었다(김중은과 이상춘, 2006). 2000년대 초반부터는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도시민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에 일상 생활권에서 가까운 거리의 이색적인 명소들을 탐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이들 여가활동의 장소들은 타성적인 생업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상 속의 탈일상의 장소들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으로 인해 교외지역이 아닌 구 도심지역과 인근의 유서 깊은 역사적, 자연적, 상업적 장소들은 생활 속의 탐방명소들로 재탄생되고 있다.

여행지들은 개인적 경험에 의해 선택하기도 하지만, 주로 여행명소에 대하여 공유되는 정보들 속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광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계기는 친구, 가족, 준거집단 등의 개인적 영향과 광고, P.R, 인쇄매체 등의 미디어를 통하여 학습, 지각, 경험된 것이 동기로서 나타나 관광행동을 일으킨다(서태양과 손호기, 2006).” 이 중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는 여행서적, 여행 잡지, 또는 최근 스마트폰기기의 보편화로 인한 어플리케이션과 e-book을 통하여 공유가 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장소연구의 접근방법으로 볼 때, 이러한 여행안내서를 포함하는 문학작품, 여행기, 풍경화 등 비학술문헌을 사용한 장소의 해석은 현상학적인 장소연구의 전통적인 방법에 속한다(이규목, 1988a). 현상학적 방법은 생활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주관

적 ‘삶의 세계’의 탐구이며, 연구의 보편성 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신문, 광고, 여행서적 등, 보다 공공성이 높고 ‘상호주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자료를 선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된 연구 자료로 사용하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관광안내서는 작가가 체험한 장소별 매력과 이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셀러급의 문헌들은 독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매력요인들을 중심으로 이 장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들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에 필요한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정보매체의 빈도와 내용을 분석하는 문헌분석과 이를 보완하는 현장연구를 종합하여 선호되고 있는 서울 탐방명소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탐방명소들의 장소적 특징을 배후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탈근대 도시사회의 특징으로 젊은 세대와 전문인들이 원도심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부응하여 원도심의 매력을 높이려는 환경재생사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서울 도시탐방명소의 보편적인 장소적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서울 도시환경의 정체성 보존과 창조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관련 선행연구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관이론 및 관광관련 연구와 서울을 중심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개별 장소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탐방명소에 대한 장소의 체험을 분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성 관련 연구 중에서 주

로 최근의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박선희와 김연금(2011)은 선유도 공원을 정보화 사회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경관해석을 중심으로 1인 블로그에 의해 포착된 관점을 통하여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인 블로그 자체가 주관적이라, 해석의 어려움과 유형화, 계량화의 한계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계량적 방법의 한계성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의 하나인 질적인 장소의 연구로 판단된다. 이창연과 김한배(2010)는 '도시 대표경관의 인지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표경관들을 도출하고, 그곳에 대한 인지요인들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새로운 분석결과는 실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도시경관의 이미지에 있어 외관만이 아니라, 활동적 요인과 의미적 요인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승빈 등(2011)의 '장소 경험분석을 통한 도시 내 장소성 특성 연구'에서는 서울시 포함, 5군데 도시에서 장소성이 높은 장소경험이 연구되었다. 장소성이 높은 장소로는 공원·문화재 등 자연·역사적 자원과 관련이 있고, 관광도시의 경우 장소성 높은 장소가 공간적으로 도시의 중심에 집중됨이 도출되었다.

이밖에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시경관 연구에서는 대표경관, 이미지, 장소성 등 유사한 주제어로 시민들의 인지상태를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는데, 대체적으로 보아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산, 강, 문화재, 건축물 등 가시적 성격이 강한 랜드마크 급들의 경관요소들이 언급되었던 반면(윤인규, 1993; 한은실 등, 2006), 최근의 연구에서는 전통거리나 전통주거지, 문화지구, 시장 등 역사·문화적 성격이 강한 거점적 활동장소 내지 도시관광의 명소들이 추가, 대체된 것(임승빈 등, 2011)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고, 주로 빈도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인지하는 도시경관요소들의 유형과 분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체험을 통한 개개 경관자원들의 장소적 매력과 요인의 규명에는 관심을 덜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보다 계획적,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문조사결과의 계량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관광관련문헌의 내용분석과 이용자의 장소체험 등 질적, 내용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저자와 시민들의 관광체험에 근거하여 쓰여진 관광안내문헌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등장한 탐방명소들의 등장빈도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서울 탐방명소의 장소성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sup>1)</sup>.

연구의 접근방식은 크게 비학술적 문헌연구에 의한 탐방명

소의 등장빈도분석과 내용 분석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한 현장연구로서 연구자의 관찰 분석과 방문자의 개방형 면담이 더해진다. 이들, 빈도분석, 내용분석, 참여관찰, 개방적 면담 등은 장소연구의 고유한 방법들이다(임승빈, 1991). 마지막으로 이들을 종합하여 서울 탐방명소의 총체적인 장소특성의 해석과 전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탐방명소들의 배후도시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도시와 지역맥락을 분석하고, 중점 연구대상지에서는 장소성을 구성하는 가시적 부분과 체형적 부분을 포괄하여 전체 도시경관적 시야에서 탐방명소의 장소적 성격과 그 매력요인을 규명하려고 한다.

먼저, 각종 관광안내문헌 자료에서 추천된 탐방명소들을 장소별로 집계하고 유형별로 분류함으로써, 서울의 전반적인 관광환경적 성격을 파악하려 하였다. 동시에 각 유형별 상위빈도수 탐방명소들을 중심으로 문헌에 나타난 내용들을 분류·분석하여 장소별 매력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후, 상위빈도수의 장소들을 현장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현장분석을 통하여 앞서 문헌분석 결과들을 확인, 보완하여 유형별 탐방명소들의 장소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 II.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 1. 관련이론연구

관련 이론연구에서는 도시경관 이론들 중 정성적 이론과 장소이론, 그리고 관광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여 분석틀의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관과 장소에 대한 이론에는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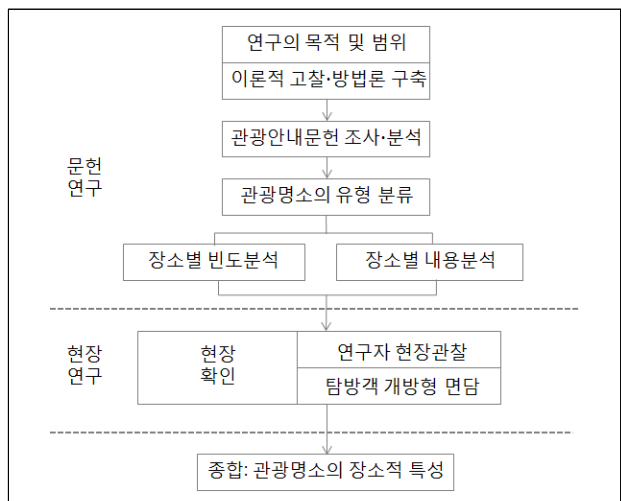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

먼저, 도시경관의 해석에 관한 초기적 연구로서 Lynch(1960)는 도시경관을 가시적 이미지의 구성으로 보았으며, 주요한 이미지 요소로서 통로, 결절점, 지역, 경계, 랜드마크를 발견하였고, Steinitz(1968)는 이 논의를 연장시켜 이 중에서도 랜드마크, 통로, 경계는 '가시성'이 특히 두드러진 반면, 결절점이나 지역은 그곳에서의 '활동'과 '의미'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일종의 이원적 구조로 설명하였다. 상징적 경관의 구조해석에서 볼 때, Appleton(1975)은 선호경관의 보편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것과 선천적 생물적 욕구가 융합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조망-은신(Prospect and Refuge)<sup>2)</sup>의 대조적인 이중구조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Cullen(1961)은 사회행태적 관점에서 도시경관의 체험적 측면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사람들은 '이곳(here)과 저곳(there)', '이것(this)과 저것(that)' 등 체험의 이중구조와 대비를 통해 장소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Relph(1976)는 그의 독보적인 장소연구에서 가시적 측면인 외관과 체험적 측면인 활동과 의미의 양대 측면을 결합시켜 장소성의 기본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들 도시경관의 정성적 이론이나 장소이론의 공통된 특징은 경관을 이루는 요소나 그의 인식에 있어서 이중적, 대비적 구조를 강조한다는 데 있다.

국내에서도 이규목(1988b)은 도시경관의 장소적 특성을 '가시성', '중심성', '대비성' 등으로 파악한 바 있고, 임승빈(2008)도 도시경관의 선호도를 높이는 시각적 원칙으로 '대비성'과 '조화성'의 이중구조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 도시의 장소적 매력을 형성하는 특징을 '이원적 구조의 상보적 관계'로 본 연구(이규목, 2002)도 있었다. 즉, 경관과 장소의 이원구조란 결국, 경관·장소의 양면적 성격으로서, 인접된 경관요소 간에 상호이질적인 '대비적 성격'과 상호동질적인 '연계적 성격', 그리고 그들 간의 상생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편, 관광자원의 매력성<sup>3)</sup>에 대하여 Ritchie and Zins(1978)나 Coltman(1981) 등은 일반적 요인으로 접근용이성, 자연경관, 오락 및 쇼핑시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공예품, 전통, 역사와 종교, 스포츠 시설 등의 요인을 강조하였다. Kozak and Rimmington(1999) 역시 관광의 매력인자로서, 경관, 유희, 쇼핑 등을 강조하였으며, 임주연(2002)은 자연적 요인으로서 주변 자연경관, 역사 문화적 요인으로서 역사 자원의 보존상태, 역사·문화적 볼거리 등을 강조하였다. 이재곤(2005)은 자연성에서 자연미, 역사성에서 역사·문화유적, 활동성에서 체험활동, 시설성에서 음식·숙박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관광자원학의 이론들로 볼 때 관광대상자원의 보편적 유형은 자연형, 역사형, 체험형으로 크게 구분, 정리할 수 있겠다. 이들 관광자원들을 감각적 행위들과 관련지어 보면 크게 볼 거리(자연경관, 역사문화유적), 즐길 거리(유희, 쇼핑), 느낄 거리(역사와 종교)를 통해서 만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펠프가 주장한 장소성을 구성하는 양대 측면인 눈을 통한

'가시적 측면'과 몸과 마음을 통한 '체험적 측면'과도 부합되어 관광의 매력도가 장소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관광전문가들도 '대비'와 '연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 즉, 관광행위의 기본성격은 탈일상성의 추구이며, 기존 일상환경과 '대비'되는 차별성으로 관광동기를 촉발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관광은 인접된 장소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연계관광'의 형태를 가지므로, 주변 지역과 동질적 성격을 갖는 '연계성' 또한 탐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비와 연계'를 전체 도시환경과 탐방명소와의 장소적 관계를 규정짓는 중심개념으로 사용하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광안내서에 등장하는 서울의 다양한 관광명소들을 대표적 유형들로 분류한 다음, 이들의 도시환경과 관련된 장소적 특성을 다양한 층위의 '대비와 연계양상'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 2. 분석의 틀

지리학자 Agnew(1987)에 의하면 장소의 지리적 특징은 위치(location), 지역형태(locale), 장소감(sense of place)의 세가지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한다(Cresswell, 2004: 19에서 재인용). 이렇게 볼 때,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도시탐방명소들은 언제나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인지되므로 그 장소의 특성은 도시 내 위치와 주변지역의 가시적 형태 및 용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탐방명소들의 장소적 특징은 전체 도시적 차원과 주변 지역적 차원, 그리고 장소 자체의 특징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다차원적인 맥락의 종합적 검토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 연구자료인 관광안내문헌들은 대부분 개별적 탐방명소의 설명을 도시적 맥락과 분리하여 장소 내적인 체험 위주로 서술한 것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헌분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구자가 직접 현장관찰과 탐방객 대상의 개방형 면담을 통하여 도시적 맥락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선행 문헌분석의 결과와 종합함으로써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종합적으로 연구의 틀은 탐방명소들의 도시경관적 특성을 전 도시적 차원, 주변 맥락적 차원, 해당 명소 차원으로 단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한다. 이와 함께,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장소와 도시공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개념으로 논의되었던 '대비성'과 '연계성' 그리고 구체적 탐방명소의 '가시성'과 '체험성' 등 장소특성의 분석을, 또 한 축으로 하는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그림 2 참조). 이러한 분석틀 속에서 본 연구의 주 자료인 관광안내서의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결과들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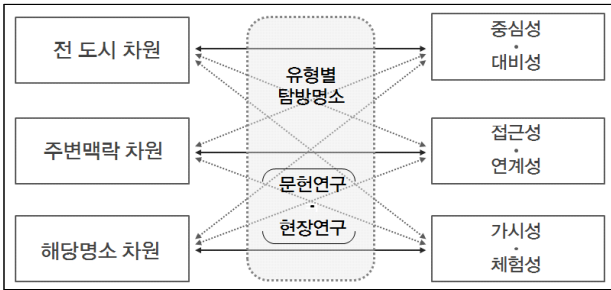


그림 2. 분석의 틀: 도시경관 속 탐방명소의 장소적 특성

함하여 서울 탐방명소의 전반적인 장소적 특성을 도출하려 한다.

### III. 탐방명소에 대한 문헌연구

#### 1. 연구대상 비학술 문헌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학술문헌은 여행안내도서 10권과 여행잡지 2권, 스마트기기에 해당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료 7가지이다. 여행안내도서는 최근 5년간 교보문고의 검색어 '여행/기행→국내→서울, 경기→베스트셀러를 기준으로 하였다. 스마트기기는 여행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평점 높은 순(별점 5개 중 4개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추가로 서울시 관광문화 홈페이지와 i-Tour Seou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Book으로 볼 수 있는 서울관광가이드북, 서울관광지도(2011)를 분석하였다(표 1 참조).

표 1. 조사대상 문헌

비학술문헌	제목		
여행안내도서 (총 10권)	권현지 등(2011) 서울 100배 즐기기 2012-2013. 김숙현 등 (2010) 서울 여행사진. 김영록과 박미경(2011) 주말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길 기여행 서울·수도권. 설은영 등(2011) 서울, 여자가 걷기 좋은 길. 손성일 등(2011) 서울 사계절 걷고 싶은 길 110. 유철상(2012) 서울여행 바이블. 오세훈(2011) 오후의 서울산책. 이동미(2008) 골목이 있는 서울, 문화가 있는 서울. 이하람(2010) 두근두근 서울산책. 정기범과 윤영주(2012) 시크릿 Seoul.		
	여행잡지 기사 (총 2건)	송수영(2013) 뻔한 서울? Fun한 서울! 여행스케치. 박진주(2013) 작은 지구촌 명동, 트레블마인드.	
	홈페이지(1)	서울시 관광문화 홈페이지 <a href="http://www.visitseoul.net">http://www.visitseoul.net</a>	
	스마트 기기 (총 7자료)	어플리 케이션 (4)	국내여행총정리, GREATBLUE INC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여디갈까. (주)모바일페이스 i Tour Seoul, Seoul Tourism Organization
		E-book 서울매거진 (3)	서울관광가이드북, 서울특별시 서울 베스트 100,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지도2011, 서울특별시
	총계	20자료	

#### 2. 탐방명소의 유형 분류

앞서의 비학술문헌들에 등장하는 탐방명소들을 경관 및 관광이론에 근거하여 성격별로 분류하였다. 관광이론에 나타나는 관광장소의 매력은 크게 탈일상의 장소로서 현세의 일상에서 탈출하여 그것과는 이질적인 별세계의 경관을 찾아가려는 의식을 반영하는데 있다고 보이며, 이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 중 하나는 그들이 그리워하는 과거의 원형적 풍경을 찾아가려고 하거나, 두 번째로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국문화와는 다른 이국적 풍경을 찾아가려는 경향으로 압축된다고 보인다. 전자의 경우 소위 원풍경(原風景)으로서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으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는 현대 도시에서 특별한 다문화적 생활풍경으로서의 생활문화경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대표적 탐방명소들을 크게 자연형 탐방명소, 역사형 탐방명소, 생활문화형 탐방명소로 분류하였다.

자연형 탐방명소는 세부적으로 면적 자원인 산과 선적 자원인 강, 하천의 경관요소, 근린공원, 숲길, 수목원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역사형 탐방명소는 점적자원의 문화재에 해당되는 궁궐, 사찰, 성곽, 그리고 면적자원의 역사마을과 선적인 가로에 대하여 세분하였다. 생활문화형 탐방명소로는 상업지구와 문화, 예술이 혼합된 특성을 띄고 있는 문화예술지구와 문화가로, 그밖에 상업지구와 가로, 시장 등으로 세분하였다.

#### 3. 탐방명소의 빈도분석에 의한 인지도 순위

관광안내서에 등장하는 서울 탐방명소들의 빈도분포상의 특징을 표 2를 통해 분석하자면, 세 유형의 총 장소의 수와 빈도수 합계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울의 선호도가 높은 관광자원들이 유형별로 균형을 맞추며,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역사형 탐방명소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서울의 장소적 정체성이 역사도시의 성격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형 탐방명소의 1, 2위는 기존 연구의 주 경향이었던 시민 대상 대표경관 설문조사결과와도 전반적으로 부합되고 있

표 2. 유형별 탐방명소의 빈도순위

유형별	순위별 5곳 선정	소계
자연형 탐방명소	남산(14), 한강(12), 홍릉수목원(10), 청계천(9), 하늘공원(8), 양재천(8), 서울숲(8), 선유도공원(8), 울림공원(6), 북서울꿈의숲(6)	10곳 총 89회
역사형 탐방명소	덕수궁(12), 경복궁(11), 윤현궁(11), 창덕궁(9), 서울성곽(8), 봉은사(6), 암사동선사주거지(7), 서촌(7), 몽촌토성(6), 인사동(5), 북촌한옥마을(5), 남산골한옥마을(5)	12곳 총 92회
생활문화형 탐방명소	이태원(12), 대학로(12), 홍대(11), 동대문시장(10), 명동(8), 압구정·청담동(7), 노랑진수산시장(7), 남대문시장(6), 서울약령시(6), 평화문광장(6), 서울광장(5)	11곳 총 90회

다. 특히, 남산은 그 위치적 중심성과 가시성, 그리고 역사성이 복합되어 있다. 한강은 특히 최근 들어 점점 시민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경관자원인데, 강남이 급성장하고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접근성과 가시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최근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한강변의 공원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시민의 다양한 이용이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형 탐방명소 중에는 궁궐들이 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면적 규모와는 관계없이 덕수궁이 최우위를 보이는 것은 도심상업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가시성,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지역과 경관적, 용도적 대비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생활문화형 탐방명소는 도시민의 생활현장에 인접해 있다는 위치적 요인도 있겠으나, 실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다양성이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이태원상가는 이국적 경관과 음식, 종교 등 다양한 이국 문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요인일 것으로 추측되고, 2위 대학로는 평소 경험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체험의 장소라는 것이 일상적 생활과 차별화된 매력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 4. 탐방명소의 세부장소들과 내용분석

하나의 탐방명소는 보통 여러 세부장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관광안내서에서는 각 세부장소들의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여러 관광안내서에 등장하는 탐방명소별 세부장소들의 출현 빈도 순위와 내용분석을 통해 주된 장소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표 3, 표 4, 표 5 참조).

여기서는 유형별로 1, 2순위의 탐방명소들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하려 한다.

#### 1) 자연형 탐방명소

자연형 탐방명소들 중 빈도순위가 높은 명소들은 '남산'이나 '한강'과 같은 대형 장소들이며, 그들 각각은 다수의 세부 장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세부장소들은 나름대로 단위 관광자원으로서의 장소적 특징을 갖고 있다.

자연형 탐방명소의 1순위인 남산의 경우 관광안내서에서 “눈을 감고 서울을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라는 언급은 명실공히 서울 제1의 대표경관이라는 것을 뜻한다. “서울 한가운데 있는 숲”, “서울 한복판에서 꿩, 다람쥐를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설명은 서울 원도심과 대비되면서도 가장 접근성이 높은 자연환경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급빈도가 높은 세부장소로 'N타워(구 남산타워)', '산책로(특히 북측 산책로)', '봉수대' 등이 1, 2, 3순위로 나타났다. 이중 N타워는 가시성이 높은 곳으로, 산책로는 활동성이 높은 곳이며, 각각 수직성과 수평성이 강하다는 뜻에서 대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 봉수대는 역사적 의미가 높고 도심부를 바라보는 주요 조망지점이기도 하다. 이외 전통적으로 남산의 상징이기도 한 '케이블카'와 '팔각정'이 4, 5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남산을 추천하는 “서울 최고의 전망”, “외국인의 탐방명소”라는 언급은 복잡한 서울 도심부를 파노라미한 전망으로 볼 수 있는 전망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N타워, 북측 산책로, 봉수대, 케이블카 등이 조망명소, 특히 야간경관 추천). 이 또한 주변부의 빌딩숲 속의 폐쇄적인 가로경관과는 대비되는 경관이다.

한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급인 “서울 중심의 큰 물줄기”,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서울 전체로 볼 때, 남산과 대비되는 수평적 거대규모의 자연형 경관자원임을 뜻한다. “스포츠, 레저의 천국”, “유람선은 현대의 풍류” 등은 한강이 서울

표 3. 자연형 탐방명소의 내용분석(빈도 2순위까지)

유형분류	탐방명소	전체내용 발췌	세부장소	장소별 내용 발췌
	순위(빈도)		순위(빈도)	
자연형 탐방명소	1. 남산(14)	-눈을 감고 서울을 상상했을 때 떠오름. -서울 한복판에서 꿩, 다람쥐를 볼 수 있음. -서울 한가운데 있는 숲 -남산에 얽힌 역사, 풍수지리상 중요한 산 -최고의 전망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 -외국인의 탐방명소	1. N타워(11)  2. 산책로(8): 북측산책로 4, 산책길 3, 벚꽃산책길 1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서울 시내 한눈에 감상, 서울의 야경 -외국인의 탐방명소  -북측산책로: 차량통행 금지여서 편안함, 자연을 느끼기 좋음, 곳곳에 마련된 전망테라스 -남측순환산책로: 소나무 숲 나무침대 삼림욕
	2. 한강(12)	-서울 중심부의 큰 물줄기 -삶의 휴식처이자 자연을 만나는 비상구 -12개 지구로 나뉘져 있는 한강은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 -스포츠 레저의 천국 -현대의 풍류(유람선 등) -강변도로나 올림피도로에 막혀서 접근하기 힘들.	1. 반포한강공원(11)  2. 여의도 한강공원(5)	-달빛무지개분수(3): N타워 불빛과 어우러짐. -세빛등등섬(3): 3개의 인공 섬의 조명이 한강의 진수를 느끼게 해 줌, 세계 최초로 물위에 떠 있는 건물  -수목, 카페, 보트장 등 편의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짐. -한강둔치와 여의도공원이 지하보도로 연결 -조깅, 하이킹, 인라인스케이트 등 레포츠 마니아 모여 듬. -유람선 나루터: 유람선으로 서울 야경감상 -요트나루, 야외공연장(공연, 촬영) -여의도셋강 생태공원: 국내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

의 대표적 수변공원으로서 레크레이션 활동의 다양성과 거대한 수평적 조망축임을 뜻하고 있다.

한강은 서울의 전 지역을 횡단하는 거대 규모의 강으로 현재 12개 지구의 수변공원을 갖고 있는 최대 규모의 공원군이다. 관광안내서에 등장하는 세부장소로서는 그 중 '반포한강공원'과 '여의도 한강공원'이 각각 1, 2위이다. 반포한강공원에서 "달빛무지개분수", "세빛둥둥섬" 등 최근 조성된 시설의 가시성 위주의 경관을 특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의도 한강공원은 "조깅, 하이킹, 인라인스케이트 등 레포츠 마니아"의 천국으로, "유람선 나루터, 요트나루와 야외공연장" 등의 수경감상과 문화활동 등 활동성 위주의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2) 역사형 탐방명소

역사형 탐방명소들은 비교적 대규모인 '덕수궁', '경복궁', '운현궁' 등의 궁궐들이 1, 2, 3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도심지에 최근 접한 곳들이다. 각 궁궐들의 세부 장소들은 궁궐 내의 건축시설이나 조경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1순위인 덕수궁의 세부장소로는 특이하게 궁궐 내부 시설이 아닌 외부 시가지와의 경계부인 '덕수궁돌담길'과 내부의 '석조전(덕수궁미술관)'이 우선순위 동물 1위로 나타났다. '덕수궁 돌담길'의 성격은 자체의 가시적 특징 이외에 덕수궁의

입지가 근현대 도시중심과 인접하고 있다는 가시적, 역사적 대비의 매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석조전(덕수궁미술관)'은 기존 전통 궁궐건축물들과 양식상 이질적인 대비를 이루는 건물인 동시에 특히, 미술관으로서 문화적 활동성이 높게 인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덕수궁을 표현하는 "중세와 근대가 잘 어우러짐"은 도심 시가지 속 역사공간 간의 대비를 말한다. "서울에서 가장 운치 있는 길(덕수궁 돌담길)", "광화문 연가" 등은 덕수궁 돌담길 주변 역사지구의 낭만적 분위기가 주요 매력요인임을 뜻한다.

경복궁을 표현하는 "백악산을 배경으로 장엄하게 서 있음(근정전)", "서울의 중심(광화문)"이라는 언급은 풍수적 입지를 통한 주변 도시경관과의 경관적 대비성, 위치적 중심성을 뜻한다고 보인다.

3) 생활문화형 탐방명소

생활형 탐방명소들은 주로 특정 도시가로와 그 주변의 특정한 용도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태원'과 '대학로'가 동물 1순위, 홍대 앞이 근소한 차이로 3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동물 1순위 중 하나인 이태원의 경우, 세부장소 언급순위가 '이태원패션상가', '엔틱가구거리'가 1, 2순위로, '이슬람사원'과 '세계레스토랑길(해밀턴호텔 뒷길)'이 동물 3순위로 나타

표 4. 역사형 탐방명소의 내용분석(빈도 2순위까지)

유형분류	탐방명소	전체내용 발췌	세부장소	장소별 내용 발췌
	순위(빈도)		순위(빈도)	
역사형 탐방명소	1. 덕수궁 (12)	-중세와 근대가 잘 어우러짐. -고종 때 지은 서양식 건물이 특징 -수문장교대석: 서울 최고의 관광히트상품	1. 덕수궁돌담길 (5)	-서울에서 가장 운치 있는 길 -광화문연가 -아름드리 가로수와 돌담이 어우러진 멋스러운 장소
			2. 석조전 (덕수궁미술관: 5)	-석조전(3): 조선 왕조가 지은 마지막 궁궐 건물 -20세기 초 서양식 건물로는 가장 큰 규모 -덕수궁미술관(2): (서관)도심 속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2. 경복궁 (11)	-조선의 으뜸 궁궐 -일제시대 수난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에 매료됨.	1. 경회루(6)	-경복궁을 대표, 조선 건축미학의 절정 -경복궁의 정원, 연못에 비친 화려한 모습
			2. 근정전(5)	-백악산을 배경으로 장엄하게 서 있음.

표 5. 생활문화형 탐방명소의 내용분석(빈도 2순위까지)

유형분류	탐방명소	전체내용 발췌	세부장소	장소별 내용 발췌
	순위(빈도)		순위(빈도)	
생활문화형 탐방명소	1. 이태원 (12)	-서울의 대표적 외국인 거리 -서울 속의 작은 지구촌 -거리분위기가 이국적, 이색적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음. -낮과 밤의 풍광이 다름. -복합문화공간이 많다.	1. 이태원상가(6)	-의류전문상가 -이태원패션1번가, 보세옷상가 -트렌드세터들이 즐겨 찾는 쇼핑 타운
			2. 엔틱가구거리 (4)	-유럽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100여 개의 고가구점과 골동품점이 모여 있는 이태원의 명소
	1. 대학로 (12)	-젊음의 거리 -100개 이상의 소극장 -대학로 예술극장 -서울대 있을 때부터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임.	1. 마로니에공원 (6)	-문화 마당의 상징 -다채로운 거리공연
			2. 섯대박물관(5)	-자물쇠 박물관 -화려하게만 보이는 대학로 안에 오래된 건물과 추억

났다. 이태원은 기본적으로 다문화형 상업구역이며, 외국인 상대의 의류패션상가로 지역이미지가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이국적 상품의 쇼핑과 음식체험 등 활동성이 강한 상가 위주로 세부장소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태원을 표현하는 “서울 속의 작은 지구촌”, “거리 분위기가 이국적, 이색적”, “세계 곳곳에서 온 외국인들로 가득”,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음” 등은 다문화 사회라는 차별화된 지역성이 기존도시와의 대비를 통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낮과 밤의 풍광이 다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극적인 변신을 보여줌으로써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률 1순위의 또 다른 한 곳은 대학로와 그 주변의 문화지구이다. 대학로의 세부장소로는 ‘마로니에공원’과 ‘첫대박물관’, ‘아르코미술관’이 각각 1, 2, 3위이다. 대학로는 보통 마로니에 공원을 둘러싼 배후의 주거·상업 복합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곳은 서울 최대의 소극장 단지로서 100곳 이상의 소극장이 분포해 있다는 것이 문화지구로서 가장 큰 특징일 것이나, 개개 소극장들은 너무 많아 그런지 일일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학로를 표현하는 “서울대 있을 때부터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임”, “젊음의 거리”라는 언급은 대상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성격과 현지점 활동 간의 대비와 연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100개 이상의 소극장”, “문화마당의 상징(마로니에 공

원)”, “다채로운 거리공연” 등은 대학로 조성 이후 부여된 새로운 용도와 이용자의 활동을 통해 문화중심으로서 성격을 구축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IV. 탐방명소의 현장관찰과 개방형 면담

##### 1. 현장분석 대상지 선정과 방법 개요

현장관찰과 개방형 면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헌분석의 대상인 여행안내서들이 각각의 탐방명소들을 주로 개별적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어서 전체 도시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현장관찰과 개방형 면담의 대상지는 유형별로 대표적 1, 2순위인 탐방명소들로 한정하였다.

현장관찰은 서울지도의 도상분석과 연구자의 평소 방문시의 체험, 그리고 직접 해당 장소에 가서 관찰 확인한 것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현장관찰은 2013년 3~6월간 평일과 주말 포함 동일 장소당 3회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 체류, 관찰하였다. 현장관찰의 기본 관점은 표 7과 같으며, 확인하고자 하는 장소의 특성들은 앞서 분석의 틀에 의거하여 거시적인 도시적 차원에서는 ‘중심성’과 ‘대비성’을, 주변맥락으로는 ‘접근성’과 ‘연계성’을, 해당 장소 내부에서는 ‘가시성’과 ‘체험성’을 중심으로 보고자 하였다.

표 6. 개방형 면담 대상자 유형(인)

유형별 탐방명소		성별		연령대		거주지		
		남	여	20~30대	40~50대	1km 이내 (도보권)	1km 이상~서울 시내 (대중교통권)	기타 지역 (지방권)
자연형 탐방명소	남산(5)	2	3	4	1	1	2	2
	한강(5)	1	4	5	-	2	3	-
역사형 탐방명소	덕수궁(5)	1	4	4	1	1	3	1
	경복궁(5)	2	3	2	3	1	2	2
생활문화형 탐방명소	이태원(5)	2	3	5	-	1	3	1
	대학로(5)	-	5	4	1	1	3	1
총계(30)		8	22	24	6	7	16	7

표 7. 현장연구 기준

		현장관찰	개방형 면담
현장연구 기준	전 도시차원	-대상지의 도시적 위치, 가능접근로 -주변 토지이용, 시각적 노출도	1. ‘○○’의 전체적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심성, 대비성 파악
	주변맥락차원	-주 접근경로, 주변연계 탐방자원 -주변토지이용, 랜드마크	2. 이 장소 주변에 있는 곳으로서 종종 들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3. 그곳이 가지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접근성, 연계성 파악
	장소적 차원	-내부 주 탐방경로, 세부장소 -이용자 밀집분포, 행태 -외관, 조망	4.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5. 그것들이 가지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가시성, 체험성 파악



개방형 면담은 각 장소별로 방문자 5명씩, 대상자 선정은 방문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였다. 면담기간은 2013년 4~5월간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실시하였고, 면담시간은 현장관찰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 1인당 20분 내외로 하였다. 면담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범위는 주로 20~50대 분포로 나타났고, 그 중 20~30대의 비중이 높았으며, 주 이용객의 거주지 분포는 명소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주로 대상지에서 1km 이상 떨어진 서울시내 대중교통권 내의 분포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면담의 내용은 전체 도시와의 관계와 주변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장소 내부의 체험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질문의 문항구성은 위의 표 7과 같으며, 자유로운 응답을 위해 문항에 대한 설명은 최소로 하였다.

## 2. 장소별 현장관찰과 개방형 면담 결과

남산은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녹지거점으로 중구와 용산구에 걸쳐 대규모의 자연형 휴식처로서 이용되고 있다.

남산의 외관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수직적이고 강북 도심에서 위치적인 중심성을 보인다. 서울 원도심과 대비되면서 가장 접근성 높은 자연환경이다. 주변과의 맥락에서 볼 때 남대문시장과 명동 및 이태원의 상업지역과 연계성을 이루고 있으며, 상업지역 간에도 남대문 시장의 전통적 분위기와 명동의 현대적 이미지의 대비성이 나타난다. 가능한 접근로는 북측 산책로와 남측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이며, 명동역에서 내려 조금만 올라가면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충무로역에서 순환 버스를 타면 팔각정에서 내릴 수 있다. 이용자들은 N타워, 팔각정 주변, 북측과 남측 산책로에 밀집 분포도가 높았다. 체험적 측면에서는 정상부와 북측 산책로가 조망명소로서 주된 매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드라마 등의 매체를 통한 상징적인 인식 또한 장소적 매력요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방문객의 면담 결과에서도 남산의 중심성과 시가지와의 대비성은 대표적 매력으로 드러나고, 주변과의 이용상 연계는 “명동”, “남대문시장”, “이태원”의 상가와 음식점이 많이 나타나며, 공원 내부에서는 “케이블카”, “삼순이계단” 등의 가시성이 독특한 시설체험과 “N타워”, “산책로”에서의 전망과 야경 관람 등 조망체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산의 접근도가 주로 중구인 북측면에 한정되어 있고, 횡단차도로 단절이 많아 보행접근성이 취약한데, 이 점이 주변지역과의 이용적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문제가 된다. 또한 남산 주변에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주요 가로나 주변의 탐방명소에서 남산이 잘 보이는 조망점이 줄어간다는 것도 가시적 대비성과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한강은 수평적 거대규모의 자연형 경관자원으로서, 다리와

강변도로 등 일상의 이동동선 속에 개방된 시야 속에 시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한강의 수평성과 트인 시야는 주변 도심의 높은 빌딩과 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아파트 위주의 주변토지 이용, 강변제방과 강변차량전용도로 등은 연속적인 단절요소로서 주변 맥락과의 가시적, 활동적 연계성을 차단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강공원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반포한강공원’의 도시적 위치는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한강의 물줄기 중 상류의 한남대교와 하류 동작대교 사이 강변 남단에 위치한 길이 7.2km 구간이다. 특히 한남대교가 남산과 강남을 잇는 도시 중심부에 있어 반포공원도 전체 한강의 중심적 위치에 인접해 있다.

가능한 접근로는 반포대교 상류와 하류의 주차장, 잠수교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 반포무지개분수 부근이다. 달빛무지개분수는 이 장소의 대표적 랜드마크이다. 물방울 놀이터, 인라인허브,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동작대교 남단에 전망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다. 내부의 연속 탐방경로는 여의도와 잠원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7.2km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반포무지개분수 부근이다. 이용자들의 주 이용행태는 자전거, 산책, 분수야경 감상으로 나타났다. 체험적인 부분에서 한강만이 가질 수 있는 동적인 즐길거리와 여유로운 분위기가 매력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방문객의 면담 결과에서도 한강은 도시 전체와의 관계에 있어 “차량이동 동선에서 잘 보이고”, “개방적이고”, “자연과 도시와의 대비”, “야경” 등이 매력적이라고 하여 가시적 대비성이 두드러지는 하나, 접근도가 주로 “한강대교”, “동작대교” 등 다리를 통하게 되고, 주변 주거지로부터 가깝다는 것 외에 주변지역과의 가시적, 이용적 연계성은 크게 떨어지는 등 도시환경의 단절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덕수궁은 서울시 중구 정동에 있는 조선 시대의 궁궐로서, 시청 옆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여 접근성과 이용도가 높다. 주변에는 업무 및 상업지구가 밀집해 있어서 덕수궁의 전통적 건물과 주변 현대식 건물은 높이와 양식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경복궁과 덕수궁, 남대문의 역사적인 장소가 가시권에 들어 있는 것은 상호연계성을 높인다. 덕수궁은 운치 있는 돌담길을 따라 정동의 근대유산지구와 문화와 예술이 연계되어 있다. 함녕전에서 석조전에 이르는 후원 산책길과 석조전, 덕수궁 미술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하는 교육 등이 이루어져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방문객과의 면담 내용으로 볼 때 덕수궁은 도시적 차원에서 “도심 한가운데 있는”, “휴식공간”이라는 중심성이 두드러지며, 주변의 경복궁, 정동, 시청광장 등 역사문화지구와의 연계적 이용이 활발하고, 특히 주변부의 “돌담길로 연결되는 문화공간” 등에서 “사색이 가능한 것”이 주된 매력으로, 정작 내부

의 장소적 매력은 “점심시간의 휴식”과 “석조전”의 “전시관람” 체험 등 보다 단순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덕수궁은 현대적 도심 속에 전통양식이 위치적 대비를 보인다. 그리고 덕수궁 주변에 경복궁과 남대문 등 역사적 명소 간의 연계이용을 촉진하며, 시청과 서울시립미술관, 정동길의 문화와 예술, 상업적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가시적으로 돌담길은 유기적인 곡선형태와 돌담에서 우러나오는 고풍스러움이 주변 문화 예술시설과 시각적 연계를 이루고 있다. 체험적인 측면에서는 주변 상가의 맛집과 돌담길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행위 등 다양한 감각적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복궁은 종로구에 있는 조선시대 정궁(正宮)으로 한국의 대표적 전통궁궐로서 차별성을 가진다. 북악산과 인왕산의 중후한 형태는 경복궁의 거대한 규모와 어울리며, 가시성, 중심성뿐 아니라 여타 도시지역과의 대비성을 느끼게 한다. 청와대, 정부청사 등 주요 정부 기관과 역사박물관,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등의 역사와 공공, 문화예술이 연계를 이루고 있다. 방문객들은 주로 광화문과 흥례문, 근정전, 경회루 등 경복궁 남측에 집중되어 있다. 방문객과의 면담 내용으로 볼 때 경복궁은 도시적 차원에서 “규모의 차별성”, “산으로의 조망” 등 주변과의 가시적 대비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주변의 고도 제한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주변 지역과의 맥락으로는 삼청동, 부암동 등이 소수 나타나고 있으나, 인근의 북촌, 서촌은 의외로 언급이 거의 없어 덕수궁보다는 주변 연계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장소 내부에서는 경회루, 근정전 등의 건축과 정원의 가시성 외에 체험요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경복궁의 역사적 건축물은 주변의 현대식 빌딩과 이질적 대비를 이루나, 덕수궁에 비해 그다지 조화롭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외 경복궁에 얽힌 역사적 의미와 수문교대의식의 행사들을 통해 역사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복궁은 덕수궁보다는 주변지역과의 가시적, 활동적 연계성이 떨어진다. 최근 광화문광장의 조성으로 광화문을 통한 가시성과 접근성은 향상되었다. 하지만, 주변의 북촌, 서촌의 역사문화지구와의 잠재적 연계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경복궁 진입이 남측의 광화문 위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점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서문과 동문의 동시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회루 등 궁내 전각들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이태원은 용산구에 속한 동으로 남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동쪽의 한남동, 서쪽의 용산동, 남쪽의 동빙고동과 접한다. 외국인을 위한 호텔, 음식점, 상가 등이 늘어나면서 이태원에는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태원동과 한남동 일부를 이태원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 이용객들은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며 녹사평역 방면에서 주로 접근한다. 의류 전문상가인 이태원상가와 해밀턴 호텔 뒤 세계레스토

랑길의 이용객 분포가 많다. 이태원 주가로 전면부는 대부분 패션상가이지만, 이면부의 복잡한 골목길들은 대부분 음식점가들로 채워져 앞길과 뒷길의 성격과 용도가 명확히 대비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종교시설인 이슬람 사원은 비교적 이태원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어, 문화적 의미와 가시적 측면의 양면에서 여타 이태원지구와 강한 대비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시적으로 대로의 화려함과 소로 주변의 섬세함이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낮과 밤의 용도적인 대비도 나타나고 있다. 지형적인 높낮이의 차이, 골목길의 형태는 미시적인 다양성을 나타내며, 인종적, 문화적으로도 다양성을 보여준다. 대상지 내부의 세계맛집거리 등의 즐길거리는 대표적인 체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면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유로움’, ‘다양성’, ‘복잡함’ 등은 이태원의 긍정적 차별성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로는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하여 있으며, 길이 1.55km, 너비 25~40m이며,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거리이다. 이곳은 옛 서울대학교 시절부터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던 곳으로, 1975년 캠퍼스가 이전함에 따라 그 자리에 마로니에 공원이 조성되고, 연극·영화·콘서트·뮤지컬 등의 공연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 마로니에공원은 구 대학부지라는 근대적 역사성을 갖고 있는 반면, 현재 시점에서는 밤낮 없이 개방되어 대중형 예술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시대적 대비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계획형 시기까지인 대학로 인근과 후면 이화동 골목길의 자생적 경관이 강한 가시적 대비를 갖는다. 이들을 묶는 것은 ‘문화’라는 큰 틀의 연계이다. 길과 골목에는 연극 포스터가 붙어 있으며, 매일 백편에 가까운 연극이 공연되고 있다. 주변에는 아르코미술관, 셋대박물관, 로봇박물관, 이화장 등의 역사문화시설이 있다. 주요 연결지역은 종로구 명륜동·연지동·효제동·이화동·동소동·연건동의 대학 교육시설들과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연계 이용된다. 창경궁로·동소문로·종로와 이어지며, 지하철을 이용하기 편리하여 접근성이 좋다.

방문객과의 면담 내용으로 볼 때 이태원과 대학로 등은 전 도시적 위치가 강조되는 답변은 거의 없었고, 장소 자체의 전체적 분위기로 이태원은 “자유스러운 분위기”나 “다양한 맛집”으로, 대학로는 “열정과 패기”나 “실내의 공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담 결과는 주로 장소 자체의 차원으로 집중되는데 이태원은 “외국인”, “이태원시장”, “세계레스토랑길”, “트랜스젠더클럽”, “이슬람문화” 등 “복잡함”이 대표이미지로 떠오르며, 그곳에서의 매력은 “다양함”, “생동감”, “이국성”, “자유” 등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오감을 통한 체험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 같다. 대학로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측면에서는 이태원보다 정돈된 느낌을 주면서도 유사하게 젊은 문화를 대변하는 “마로니에공원”, “거리공연”, “공연장”, “맛집”들이 대표적 경관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면담 내용으로 볼 때도 매력이

나 분위기는 “숫구치는 느낌”의 “문화적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방문객과의 면담 내용으로 볼 때, 이태원과 대학로는 주변과의 연계성이 다른 명소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전자상가”, “전쟁기념관” 등 인근의 상업·문화시설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거리상 떨어져 있거나 내용상 동질성이 희박하다. 대학로도 “해화동”, “성균관대” 주변의 맛집들이 연계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데, 가시적 경관의 측면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양대 장소의 가시적 차별성은 두 곳 모두 후면부의 산지지형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상지의 대비적 경관특징을 강화하고, 조망체험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태원의 후면 해방촌과 남산으로의 연결, 대학로의 후면 낙산공원으로의 연결성을 명료한 보행연결로 조성으로 강화한다면 가시성, 연계성, 조망과 활동의 체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태원의 경우는 대부분 사유지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어 중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 따라서 소규모의 공공광장 등을 조성하여 체험의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V. 종합: 도시경관적 관점의 서울 탐방명소의 장소특성

도시경관적 관점에서의 고찰은 ‘전체도시차원’, ‘주변 지역맥락적 차원’, 마지막으로 ‘해당 명소 내부’에서의 장소적 특성으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서울탐방명소에 대한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결과를 분석의 틀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전체 도시경관의 차원에서 탐방명소의 장소적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탐방명소의 유형과 관계 지어 정리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아 ‘대비성’은 규모의 전 단계에서 두루 나타나는 도시 탐방명소의 가장 현저한 장소적 특징이나, 특히 전도시적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대비성은 도시의 일상적 환경과 대조가 되는 차별성을 통해 시민들을 탐방명소로 유도한다.

전도시적 차원에서 탐방명소의 ‘대비성’은 주로 도심상업업무지와 시가지적, 용도적 대비가 강하며, 각각 도심 속 자연환경이나 도심 속 역사환경의 대비를 통해 가시적, 활동적, 의미적인 대비성을 말한다. 이밖에도 자연형과 역사형 명소에서는 ‘중심성’이 명소탐방의 중요한 매력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풍수산천 등 자연과 궁궐 등 국가시설, 시장 등 도심중심이 인접하여 입지하는 관행으로 대비성과 중심성이 역사적으로 함께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다. 이에 반해 생활문화형 탐방명소는 전도시 차원의 대비성과 중심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경우, 외형적 가시성보다는 특수한 지역의 내용적 체험이 매력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적, 체험적 매력은 시대가 진행

될수록 상대적으로 유인력이 커지고 있어 지역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이 도시관광에서 연구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지역과의 맥락에서 볼 때는 ‘접근성’과 ‘연계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연계성이라는 것은 주로 활동이나 의미와 관련된 유사성, 연속성을 뜻하며, 주변지역과의 연속적 이용이 탐방명소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주로 접근통로변의 시설용도와 관련된다. 자연형 탐방명소에서는 주변 상업공간에서의 쇼핑과 장소 내 여가행위의 연계, 역사형 탐방명소에서는 주변 역사공간들과의 연계탐방, 생활문화형 탐방명소에서는 주변문화시설과의 이용적 연계가 해당 명소의 장소적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탐방명소 주변 연계자원과의 연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자원 방향으로 접근로 증설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 탐방명소의 장소적 특성은 주로 해당 명소 내부의 탐방에 한정되는데 ‘가시성’과 ‘체험성’이 주된 매력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연형 탐방명소에서는 가시성 중 외부로 향한 개방적인 조망성이 주요한 매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주간과 야간의 조망이 모두 중요하게 나타났고, 주된 조망점들이 중요한 세부장소로서 인식되기도 했다. 역사형에서는 역사적 의미 체험과 함께 내부에서 외부쪽으로 조망시 전통적 환경과 주변 도시경관과의 대비가 흥미를 유발시키는 매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문화형 탐방명소에서는 활동적, 의미적 체험이 주요한 매력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앞길과 뒷길, 낮과 밤풍경의 복합적인 대비의 다양성이 자극적인 매력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탐방명소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가와 맛집들이 체험적 요소로서 장소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나, 주기적인 공개문화행사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환영받는 것도 시작만이 아닌 오감을 통한 체험이 장소성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VI. 결론

### 1. 연구의 요약 및 제언

관광안내서 등 관광지를 소개하는 비학술문헌들은 여행기를 대신하는 장소성 연구의 전통적인 자료이다. 본 연구는 서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 자료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탐방명소들의 장소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서울의 관광안내문헌에 소개된 탐방명소들을 성격별로 유형화하고 등장빈도를 분석하여 유형별 선호장소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탐방명소들은 크게 ‘자연형’, ‘역사형’, ‘생활문화형’으로 유형화하였고, 각 유형들을 대표하는 선호장소들은 각각, 남산과 한강, 덕수궁과 경복궁, 이태원과 대학로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관광안내문헌에서 이들 장소들이 기술

표 8. 현장연구 분석결과

유형분류	장소	현장관찰	개방형 면담
자연형 탐방명소	전 도시적 차원	-대비성: 도심과 자연의 이원대비, 인근 상업지역과 용도적 이원대비, 주변 도심 가로경관과 대비 -중심성: 서울의 위치적 중심성 -가시성: 남산의 수직적 형태	1. 높아서 어디서든 잘 보임/ 남대문, 종로, 명동 같은 상업지역 인접/ 시내 중심에 있음/ 서울 전망 감상/ 언제나 마음 편히 오를 수 있음.
	주변맥락 차원	-접근성: 도심 내에 있어 접근성이 좋음. -연계성: 주변 상업지역과 여가행위의 연계성	2. 명동/ 남대문시장/ 서울역/ 남산둔개스/ 신세계백화점/ 한강로/ 이태원 3. 명동의 코스메틱 건물들이 새로운 느낌/ 남대문 시장은 한국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매력/ 명동은 쇼핑하기 좋음.
	장소적 차원	-가시성: 야경, 북측산책로, 봉수대, 케이블카에서 보는 조망이 좋음. -활동적 체험성: 산책로 이용/ 즐길 거리: 장소 내의 공원시설 -이미지 체험성: 역사적 상징(봉수대, 서울성곽), 서울 제1의 대표경관, 매체를 통한 장소 인지	4. 케이블카/ 삼순이 계단/ 연애(커플들의 공간)/ N타워/ 산책로/ 야경/ 전망 5. 드라마와 사진 매체를 통한 이미지/ 공원 주변 조경이 잘 되어 있음/ 한적함.
역사형 탐방명소	전 도시적 차원	-중심성: 전체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 -대비성: 자연과 도심의 이원대비 -가시성: 한강의 수평성, 굽이친 형태의 자연성, 주변 빌딩과 이원대비, 시야가 트임.	1.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음/ 이동 동선임/ 야경/ 한강구간을 따라 테마가 다름/ 연령, 계층 구분 없이 개방적임.
	주변맥락 차원	-연계성: 일상의 이동 동선 속에 보이는 한강	2. 한강대교/ 동작대교 3. 주변 주거지로부터 가까움/ 교량 형태의 다양성/ 63빌딩의 랜드마크성
	장소적 차원	-체험성: 한강이라서 누릴 수 있는 뱃놀이, 자전거 하이킹 등 즐길 거리, 다수의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기억	4. 오리보트/ 반포대교 분수/ 여유로움/ 휴식감/ 유람선/ 한강대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여유로움. 5. 함께 즐길/ 자연과 도시와의 대비/ 한강대교 카페에서 보는 야경/ 자전거 마니아
역사형 탐방명소	전 도시적 차원	-중심성: 도심의 중앙에 위치 -대비성: 현대적 도심 속 전통의 대비, 한국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의 대비, 주변 상업시설과 덕수궁의 용도적 대비 -가시성: 돌담길의 굽어진 형태, 청동 근대화화지구	1. 도심 한가운데 있음/ 휴식/돌담길/시청 바로 앞에 있음.
	주변맥락 차원	-접근성: 위치적으로 도심가운데 있음. -연계성: 경복궁과 덕수궁, 남대문의 역사적 연계성, 주변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	2. 경복궁/ 삼청동/ 정동/ 시청 앞 광장/ 서울시립미술관/ 남대문시장/ 광화문광장/ 주변 카페와 맛집 3. 사색이 가능함/ 돌담길로 연결되는 문화 공간들/ 시청 앞 광장의 푸른 잔디/ 광화문광장의 조망경관
	장소적 차원	-체험성: 석조전 미술관, 시립미술관, 맛집 등의 즐길거리, 돌담길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행위	4. 돌담길/ 정동길/ 서울시립미술관/ 석조전/ 점심때 휴식/데이트, 연인/ 시청광장 5. 석조전의 서양 전통양식/ 고전적인 미/ 번잡하지 않으면서 중후함/ 인접한 미술관은 가족들과 나들이하기 좋음/ 다채로운 문화, 예술, 미술전시
생활문화형 탐방명소	전 도시적 차원	-중심성: 역사적, 공간적 중심 -대비성: 주변의 현대식 빌딩과 역사적 건축물의 대비,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시가지 건축물의 규모적 대비	1. 규모의 차별성/ 산으로의 조망/ 정원 내부가 잘 조성 됨/ 웅장함과 화려함/ 우리나라의 전통성
	주변맥락 차원	-연계성: 주요 정부기관과 역사박물관,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등의 역사, 문화, 예술의 연계, 주변의 삼청동, 서촌, 북촌의 건축물의 역사적 연계성	2. 삼청동/ 정동/ 맛집/ 시청 앞 광장/ 근처 작은 카페들/ 광화문광장/ 부암동/ 청와대(앞길) 3. 조용함/ 부암동 가는 오르막길의 조망과 맑은 공기
	장소적 차원	-가시성: 북악산, 인왕산의 풍수지맥 배경	4. 경회루/ 근정전/ 교태전/ 세종문화회관/ 북악산, 인왕산/ 정원/ 명성황후, 대정금 등 매스컴의 영향 5. 세종문화회관의 공연관람/ 수문교대 의식의 행사/ 관광객이 항상 머무/ 도심 속에서 탁 트인 곳/ 정갈함/ 풍수지리 / 역사적 스토리와 의미
생활문화형 탐방명소	전 도시적 차원	-대비성: 역사적 대비성(전쟁 vs 상업중심)이태원 메인 시가지와 그 주변의 형태적, 용도적 대비(화려함 vs 쓸쓸함), 대로와 소로 주변경관의 이원대비, 낮과 밤의 시간적 대비	1. 맛집의 종류가 다양함/ 이국적 간판, 맛집, 술집/ 자유스러운 기분, 편안함.
	주변맥락 차원	-연계성: 미군기지, 전쟁기념관, 다문화주거지	2. 용산 전자상가/ 삼각지 역(맛집)/ 전쟁기념관 3. 문화적 융복합/ 자유로움/ 정돈되지 않음.
	장소적 차원	-체험성: 맛집 등의 즐길거리 -가시성: 지형적 다양성(높낮이, 골목길, 대로와 소로), 인종적 다양성, 건축물 외관의 다양성, 문화적·용도적 다양성	4. 브런치 식당/ 외국인/ 이태원시장/ 세계레스토랑길과 음식점/ 살인사건, 트랜스젠더 클럽/ 이슬람 문화/ 복잡함. 5. 다양한 맛과 살아있는 느낌/ 생동감이 있음/ 세계레스토랑 길은 외국에 온 느낌/ 자유스럽고 편안함/ 모조브랜드 상품 구입/ 용도의 융합
생활문화형 탐방명소	전 도시적 차원	-대비성: 장소의 역사성과 현대유흥문화의 대비, 대학로의 계획된 도시 가로와 이화동 골목길, 이국적 건물들과 토속적 마을의 대비, 구 서울대와 공연문화의 인문적 연계성	1. 실내외 공연/ 열정, 폐기/ 문화생활
	주변맥락 차원	-연계성: 공원의 숲과 문화공간의 조화성	2. 혜화로터리 주변 맛집들/ 성균관대 주변 맛집 3. 오래 된 전통이 있음/ 위치적으로 대학로 주변임/ 저렴하고 다양한 음식점
	장소적 차원	-체험성: 연극과 뮤지컬 공연, 가로공연을 즐김, 맛집 등의 즐길거리 -분위기: 젊은 열정	4. 마로니에공원/ 거리 공연/ 공연장/ CGV, 커피숍, 맛집/ 성균관대/ 문화적 분위기 5. 솟구치는 느낌/ 24시간 오픈 된 느낌

표 9. 도시경관 단계별 장소특성 종합분석

분석틀	자연형 탐방명소(남산, 한강)	역사형 탐방명소(덕수궁, 경복궁)	생활문화형 탐방명소(이태원, 대학로)	
1. 전 도시적 차원	-중심성: 도심 속 자연의 위치적 중심성	-중심성: 도심 속 역사공간의 상징적, 위치적 중심성		
	-대비성: 도심 속 자연향유와 조망	-대비성: 도심 속의 역사공간	-대비성: 이국적, 문화예술적 탈일상성	
2. 주변과의 맥락	-접근성: 도심근접하나 보행접근 불편	-접근성: 도심이라 접근하기 쉬움.		
	-연계성: 쇼핑과 도심 여가행위의 연계 강함, 주거지와 주변 여가행위의 연계 약함.	-연계성: 덕수궁이 주변연계성 가장 강함. 경복궁, 덕수궁, 남대문의 역사적 환경 연계, 문화예술과 상업 활동의 연계성, 주변의 특징적 경관의 영향(산, 광장 등)	-연계성: 대체로 약함. 문화권별 주거지역과 다문화거리와의 연계, 주변문화시설과 문화거리와의 연계	
	-대비성: 주변과 용도적 대비	-대비성: 현대적 도심 속에 전통의 대비, 주변 상업시설과 용도적 대비	-대비성: 문화적, 용도적 대비성	
3. 장소적 차원	가시성	-가시성: 어디서든 잘 보임(일상 내의 동선), 조망성이 우수(야경, 트인 시야), 자연적인 형태성	-가시성: 돌담길의 전통적 형태성	-가시성: 지형적, 문화적, 건축 양식적 다양성
		-대비성: 수직적 형태와 수평적 형태의 대비, 주변 도심과 대비	-대비성: 주변 현대식 건물과 시대적, 규모적 대비	-대비성: 역사적 대비성, 앞길과 뒷길의 성격과 용도 대비, 이국적 건물과 토속적 마을의 대비, 밤과 낮의 시간적 대비
	체험성	-활동성: 산책로, 장소 내부 편의시설 등의 활동성	-활동성: 장소 내외부의 즐길거리, 문화적 활동성이 높음	-활동성: 문화생활, 맛집 이용, 상품의 쇼핑 등 체험적 활동성이 강함.
		-의미성: 역사적 상징성, 서울의 대표 장소, 매체를 통한 장소인지	-의미성: 한국 대표적 정궁(正宮)의 역사적, 풍수적 의미	-의미성: 문화적, 용도적 융복합성
		-분위기: 여유로움, 편안함, 위로받음	-고풍스러움, 중후함, 단아함, 정갈함	-자유스러움, 열정, 다양함, 정돈되지 않음

된 내용을 분석하고, 여기에 연구자의 관찰 및 방문객 대상의 개방형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각 유형별 장소들의 특성과 매력 요인을 전도시적 차원, 주변과의 맥락, 장소적 차원의 규모단계 별로 해석, 정리하였다(표 9 참조).

‘전도시적 차원’에서는 서울 탐방명소들의 공통된 장소적 특성은 탈일상적인 ‘대비성’과 ‘중심성’으로 나타났다. ‘대비성’과 ‘중심성’은 특히 자연형 탐방명소와 역사문화형 탐방명소에서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도심부 토지이용과의 대비와 도시의 중심적 위치 같은 성격을 말한다. 그러나, 근대화의 여파로, 양대 유형의 명소들은 시가지로 부터의 가시적 대비성이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다.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향한 시가지내 주요 조망점을 지정하고, 조망축을 보전하는 경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맥락의 차원’에서는 ‘접근성’과 함께 ‘연계성’이 장소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명소 주변의 상업, 문화지구와의 활동적 연계성이 장소성 강화에 필수적임을 뜻한다. ‘접근성’과 ‘연계성’은 서로 근접된 개념으로 탐방명소로 향하는 주된 접근 도로들을 시각적으로 식별성을 높이고, 활동적으로 연계기능을 장려하며,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것이 연계성 증진에 필요할 것이다. 현재 남산이나 한강 등 자연형 탐방 명소들의 접근로의 보행친화성은 크게 취약하여 개선이 시급하다. 역사형 탐방명소나 생활문화형 탐방명소의 접근로들도 인근 지역의 역사문화성을 고려하여 추가 확보하는 것이 지역적 연계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장소적 차원’에서는 대상 명소의 ‘가시성’과 ‘체험성’의 양대 측면이 장소성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시성’과 ‘체험성’은 모든 유형 탐방명소의 대상지 자체의 장소적 질을 말하는 것으로 내·외부 방향 모든 조망의 질을 높이고, 대상지 내부 시설·공간의 활동적, 의미적 체험을 풍부하게 해야 함을 뜻한다. 조망은 특히 자연형 명소에서 외부로 향하는 개방형 조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훌륭한 조망점과 통경축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특히 공공환경에서 기억할만한 체험을 원하는 수요가 점증하는 추세이니, 가급적 모든 유형의 명소에서 소광장 등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에서의 이벤트나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향후 도시 전체의 정체성과 개별 탐방명소들의 이미지와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도시적 차원에서 대비성과 중심성을 높이고, 주변맥락과의 관계에서는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개 장소들 내부에서는 조망성과 활동, 의미의 체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경관의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연구의 의의와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요즘 여행안내서 중 특히 도시관광안내문헌들에 있어서는 안내서의 기술에서, 급증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수요를 의식한 나머지 그들의 기호가 과증하게 반영되었으리

라는 우려가 한계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대 한국의 사실적 추세이니만큼 연구단계에서는 그대로 인정하되, 정책방향에 반영할 경우에는 세대간 인식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역사문화지구에서 브랜드 카페의 남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지와 개방형 면담대상자의 대표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실제 관광안내서에 소개된 유형별 탐방명소는 세 유형 각각 총 10곳 내외의 숫자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지면관계로 각 유형별 명소 중 빈도우선순위 1, 2위만을 선정하여 총 6곳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개방형 면담은 6곳 각각에서 5명씩을 대상으로 하여 총 30여명을 면담하였다. 이들 제한된 대상지와 면담대상자의 규모가 서울이라는 대도시 탐방명소의 전체 윤곽을 보여주기에는 크게 미흡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가 중심이었고, 현장연구는 문헌연구에서 취약한 도시와의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탐방명소 각각의 유형을 독립된 연구단위로 설정하고, 통계적 의미가 보다 충족될 수 있는 대상지 개수, 면담 대상자의 규모의 증대와 면담방식의 보완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오프라인의 관광안내서들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도시민의 전 연령층을 상대하기보다는 요즘 도시 내 장소들의 주된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20~30대의 청년층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선호 장소와 매력요인들이 청년층들의 취향에 치우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주 2. '조망-은신이론'이란 일종의 방어적 경관으로서, '관찰주체는 보이지 않고 대상을 볼 수 있는(to see without to be seen)' 경관이 생존에 적합한 경관으로 전통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선호되는 경관이라 주장하였다.
- 주 3. 관광현상 요소 중 한 가지로서, 타 지역이나 타국의 경관이나 문물 등을 구경, 견문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라고 정의한다(김정준, 2009).

인용문헌

1. 권현지, 윤혜진, 장미(2011) 서울 100배 즐기기 2012-2013, City 100. 서울: 랜덤하우스.
2. 김숙현, 김우선, 박동식, 유연태, 유정열, 이동미, 정철훈, 황교익(2010) 서울 여행사진. 파주: 터치아트.
3. 김영록, 박미경(2011) 주말이 기다리지는 행복한 걷기여행 서울·수도권. 파주: 터치아트.
4. 김정준(2009) 관광지 유형에 따른 관광동기, 관여도와 관광매력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중은, 이상춘(2006) 관광지리지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6. 박선희, 김연금(2011) 1인 미디어 블로그(Blog)가 포착한 선유도공원 경관. 한국조경학회지 39(3): 64-73.
7. 박진주(2013) 작은 지구촌 명동(트래블마인드 2013-07). 서울: 자유여행신문.
8. 서태양, 손호기(2006) 여가와 관광. 서울: 현학사.
9. 설은영, 장지선, 조은영, 최경애(2011) 서울, 여자가 걷기 좋은 길. 서울: 그리고책.
10. 손성일, 강세훈, 강주미, 김난(2011) 서울 사계절 걷고싶은 길 110. 서울:

비타북스.

11. 송수영(2013) 뻔한 서울? Fun한 서울!(여행스케치 2012-03 특집). 서울: 하이미디어.
12. 오세훈(2011) 오후의 서울산책. 서울: 미디어얼.
13. 유철상(2012) 서울여행 바이블. 서울: 상상출판.
14. 윤인규(1993) 도시경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규목 (1988a)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연구. 대한건축학회지 4(1): 35-45.
16. 이규목(1988b) 도시와 상징. 서울: 일지사.
17. 이규목(2002) 한국의 도시경관. 서울: 열화당미술책방.
18. 이동미(2008) 골목이 있는 서울, 문화가 있는 서울. 서울: 경향신문사출판부.
19. 이재곤(2005) 해양관광 매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관광정책학회지 11(2): 43-61.
20. 이창연, 김한배(2010) 도시 대표경관의 인지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7(6): 73-84.
21. 이하람(2010) 두근두근 서울산책. 서울: 랜덤하우스 코리아.
22.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3. 임승빈(2008) 도시경관계획론. 서울: 집문당.
24. 임승빈, 정윤희, 허윤선, 권운구, 변재상, 최형석(2011) 장소 경험 분석을 통한 도시 내 장소성 특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6): 46-56.
25. 임주연(2002) 문화관광지 속성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정기범, 윤영주(2012) 시크릿 Seoul. 서울: 시공사.
27. 한은실, 박상필, 김기호(2006) 서울의 물리적 이미지 요소 해석. 한국도시계획학회지 7(1): 23-36.
28. Appleton, J. H.(1975) The Experience of Landscape. London, New York :Wiley.
29. Coltman, M. M.(1981) Introduction to Travel and Tourism: An International Approach. New York: Van Nostran Reinhold.
30. Cresswell, T.(2004) Place. Oxford: Blackwell Pub. Ltd.
31. Cullen, G.(1961) A Concise Townscape. London: The Architectural Press.
32. Kozac, M. and M. Rimmington(1999) Measuring tourist destination competitiveness: Conceptual consideration and empirical findings. Hospitality Management 18: 273-283.
33. Lynch, K.(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34.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 London: Pion Ltd.
35. Ritchie, J. R. B. and M. Zins(1978) Culture as determinant attractiveness of an tourism reg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5(2): 252-266.
36. Steinitz, C.(1968) Meaning and the congruence of urban form and activity. AIP Journal 34(4): 233-248.
37. <http://www.visitseoul.net>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38. 국내여행총정리. GREATBLUE INC.
39.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40. 어디갈까. (주)모바일페이스.
41. 서울관광가이드북. 서울특별시.
42. 서울 베스트 100. 서울특별시.
43. 서울관광지도2011. 서울특별시.
44. i Tour Seoul. Seoul Tourism Organization.

원 고 접 수 일: 2013년 6월 21일  
 심 사 일: 2013년 7월 9일(1차)  
 2013년 8월 21일(2차)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25일  
 4인익명 심사필